

다산포럼

하시모토, 한국에는 없는가?

서지문
고려대 교수

몇 년 전부터 일본에서 하시모토 도오루라는 짚은 정치인이 각광을 받고 있어서 짚수 있는 참신한 짚은이인가 했는데 이번의 위안부 망언을 대하고는 일본의 앞날이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이번 망언을 보니 그는 도덕적 원칙이라던가 명예관념이 전혀 없고 인기를 위해서는 어떤 말과 행동도 서슴지 않는 구태의연한 권모술수의 정치인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와 같은 의식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나 생각은 해도 공개적으로 발언하지는 못하는 것을 자기가 '파감화' 말하면 대중의 지지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러나 그의 발언 결과가 보여주듯이 일본의 일반 국민은 그처럼 수치심이 없는 않았다.

기고

야누스의 두 얼굴, 오존

김은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고대 로마인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야누스를 문지기 신으로 섬겼는데, 흔히 치킬과 하이드처럼 한 몸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인간을 야누스에 빗대어 표현하고 한다. 그런데 오존이 바로 이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성층권 내에 존재하는 오존은 태양으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을 흡수하여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매우 중요한 기체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산화력이 강해 인간의 건강을 해치고 일상 생활용품이나 각종 산업제품이나 문화재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유해한 기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오존층이 1980년부터 매년 4% 씩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빛이 약해 오존층이 짚은 극지방의 오존층에는 구멍이 뻣뚫어져 지구로 들어오는 유해자외선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금지하고 그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낙극 상공의 오존홀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어 우려를 불안

하는 입에 올리기는 물론 들키자 역겨운 단어는 여성인권 의식의 확산과 함께 이제는 사어(死語)가 되었다. 적어도 공식적인 말이나 글에는 등장하지 않은지 오래다.

그 메일을 열어서 읽을 생각도 없고, 반박 문을 쓸 시간도 없어서 그 불쾌한 제복이 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 메일을 삭제해 버렸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은 발신처에서 사과메일이 도착했다. 어떤 독자의 엄중 항의를 받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파와 차별'에 대해 사과를 했다.

그 단어는 그 칼럼의 저자가 새삼 살려낸 단어가 아니고, 그 재단에서 기리는 사상가가 몇십년전에 사용한 단어였다. 그 사상가는 그 때 성매매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신의 영달을 위해 대의를 저버리고 지조를 굽히는 남자들을 꾀짖기 위해서, 그런 남자는 가장 비천한 여자보다도 타기 할만하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칼럼의 저자가 인정한 것과 같이 그 단어 자체에 치명적인 여성비하의 요소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생계의 절박한 필요 때문에 성매매를 하던 여성과 함께 경제적 이득을 챙아서, 또는 육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혼잡한 성생활을 하는 여성으로

팔적으로 지칭했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이 두 종류의 여성들인 격적으로 구별하지 않았다. 정조를 상실한 여성은 그 이유와 경위를 막론하고 인격말살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단어에 남성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생활이 'OO' 못지 않게, 또는 그 이상 문란한 남성을 지칭하는 어떤 단어도 이 단어만큼 극단적인 인격말살의 뉘앙스를 지니지 않는다.

이 소름끼치는 단어와 그 속에 내포된 순결과 여성의 인간 존엄성의 동일시가 바로 일생을 '일본군 위안부'라는 악몽 속에서, 그 피눈불과 한을 감추고 자학 속에 살게 했고, 64년의 한·일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한 피해보상이 의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한국사회가 이 할머니들을 두 번째로 죽인 것이다.

오늘날의 한국 남성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민족적인 분노를 느끼면서 유흥업소에 가서는 접객여성들의 인격을 짓밟는 말과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 보아야한다. 백정(白丁)이 인권을 획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확립된 것 같이 성매매업 여성도 인권을 존중 받을 때 우리 사회의 진정한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것이다.

물론 남북 교류사업은 궁극적인 목표인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많을 수록 좋다. 하지만 이벤트성이거나 보여주기식이어서는 아무런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단체장의 치적용이거나 과시용은 더더욱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교류는 인도적 지원과 같은 선린교류에 부합되고 각계의 검증을 거친 사업들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자체는 해당 사업들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교류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자체 단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남북교류의 방향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자체만의 일방적인 추진은 혼선과 낭패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면서 교류에 나서야 한다. 건강한 남북교류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차근차근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사회정의 포기한 새누리당 '전두환 법' 반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의 반대 기류가 거세다고 한다. 애당이 6월 국회에서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으나 새누리당이 헌법 및 연좌제 논란 등을 내세우며 시간끌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장은 지난 7일 "가족들의 재산을 무조건 추징해야 한다는 것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며 주장법 제정에 반대 입장장을 나타냈고, 유기준 최고위원도 "전두환 추징법처럼 소급 적용할 경우 혼당에게 불이익을 가져온다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주장처럼 전두환씨의 경우 현재 주장이 진행형인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또 연좌제 논란에 대해서도 개정안은 가족뿐만 아니라 제3자라도 장물이 있는 이들에게 추징하는 것이어서 연좌제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것은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씨가 군부 출신과 TK(대구·경북) 인맥을 주축으로 만든 민정당이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면서 특정지역과 보수층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적 여론을 외면한 전씨의 비호세력으로 비칠 뿐이다. 그는 16년 전 대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한 반역사적 범죄자이자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추징금 1672억 원을 지급하지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과정을 지나온 것이다. 그런 그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설득력이 없다.

새누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추징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더 이상 전직 대통령 일가가 겁은 돈을 대물림하며 호의호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게 쓰러진 법치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無等鼓

1998년 7월초 열린 최고 권위의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대회. 당시 만 20세인 박세리는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태국계 미국인 아마추어 제니 추아시리 폰과 6오버과 290타로 공동선두를 이뤄 이튿날 18홀 연장 승부에 들어간다. 다음날 연장전 역시 17번 홀까지 팽팽하게 동력을 기록한 박세리는 마지막 18번 홀에서 티샷한 공을 워터 해저드에 빠뜨릴 뻔 하며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박세리는 거칠 없이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물에 들어간 후 해저드 경사면 러프의 볼을 퍼어웨이에 안착시키며 다시 서든 데스 연장전으로 이끌고 92홀의 대장정을 승리로 마무리했다.

이때 박세리의 극적인 우승은 IMF 외환위기로 시름에 잠겨 있던 많은 이들에게 큰 용기를 줬다. 무엇보다 박세리의 깊은 종아리와 대비되는 하얀 맨발은 우승까지 그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을지 가능하게 해 진한 감동을 안겼다.

15년이 지난 현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를 호령하는 선수들은 박인비, 신지아,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애, 최나연, 김인경, 이일희, 유소연 등 일명 '박세리 키즈'이다. 1986~1988년생인 이들은 박세리의 '맨발 투혼'을 직접 봤거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골프를 시작해 박세리를 둘모델로 삼아 성장해왔다.

박인비(25·KB금융그룹)가 10일 카트리나 매슈(스코틀랜드)와 연장 3차전까지는 접전 끝에 2013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웨그먼스 LPGA 크래프팅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이번 대회까지 올해 한국선수들이 수확한 LPGA 투어 6승(박인비 4승·신지아 1승·이일희 1승)은 모두 '세리 키즈'의 손에서 나왔다. US여자오픈 역시 박세리 이후 박인비·지은희·유소연·최나연 등 '세리 키즈'가 뒤를 이어 우승컵



세리 키즈, 인비 키즈

기고

미래를 움직일 아이들, 우리 모두 멘토돼야

한국환
봉산조교사

어느 날, 미국 명문가의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외로 마차를 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너무 빨리 달리다 아들이 마차에서 떨어졌다. 아버지는 마차를 세우고 아들을 한 번 쳐다볼 뿐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떨어진 아들은 다급히 소리쳤다. "아빠, 저를 좀 도와주지 않을 건가요?" "너, 아주 많이 아파?" "그, 그럼요, 전 아파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 일어날 수 없으면 기어서라도 네 스스로 올라 타거라." 아빠의 말들은 아들은 할 수 없이 안간힘을 쓰며 일어나 비틀거리며 힘겹게 마차에 올라탔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이 장면을 지

켜보더니 비단조로 말을 걸었다. "너무 하시는 것 같군요. 저 아이는 아직 어린데..." 하지만 그 아버지는 냉정하게 말했다. "저는 저 아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중이요. 스스로 일어서는 의지를 길러주려고요."

이 아이가 훗날 미국 35대 대통령이 된 존 F. 케네디(1917~63년)이다. 이 예화는 미래의 주역을 기르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진실하고 있는 힘을 주고 있다. 이는 미래 주역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것을 가꿔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적극 지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 특히 교육관계자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여러 분야에 걸친 다양면의 지식인보다는 한 분야에 통달한 전문가(specialist)가 세계를 움직이지 않았던가? 만유인력의 뉴튼, 발명왕 에디슨,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IT 분야의 거장 빌 게이츠와 스тив커브스, 그리고 레리 페이지, 또한 투자자의 귀재 웨인 버핏이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의 손정의, 컴퓨터 백신연구의 안철수, 피겨여왕 김연아와 리듬체조 손연재, 골프의 최경주와 박세리, 축구 박지성과 야구 추신수, 그리고 세계를 지배한 양궁의 선수들과 바둑의 이창호, 이세돌 등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키워 꿈을 일군 별들이이다.

또한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현류의 열풍의 주인공들을 보면 K-POP 가수들과 강남스타일 말춤의 싸이, 대장금 등의 드라마, 의료기술(성형외과와 피부과), 풀질을 인정받은 화장품 등이 있다. 이런 현류의 바람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세계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세계 세종학원 45개국)은 아주 고무적이다. 이런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창의적 잠재력 때문이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런 현상을 보며 요즘 학교폭력, 인터넷 범죄, 조변모개식의 입시정책, 그리고 사회적 다양한 교육적 수요 등 여러 요인에 흔들리며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역을 위해 목북히 교육하며 청출어람(青出於藍)을 기대하는 성실하신 선생님들께 그 공과를 들리며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금세기 들어 한류의 열풍이 세계를 더욱 열광시키고 있는데, 필자는 이런 현상을 '한국문화의 확장(Expansion of Korean culture)'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렇지 않아도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학자들은 주장하는데, 앞으로 이 열풍이 더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한 번의 돌풍으로 그칠지의 여부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아들에게 그런 창의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발산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 프로그램, 지도 전문가들을 현재 사회를 이끌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제공하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교육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제고(提高)하는 데 있어 필요로 분분한 조건이기 때문이다.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필자로서는 이런 현상을 보며 요즘 학교폭력, 인터넷 범죄, 조변모개식의 입시정책, 그리고 사회적 다양한 교육적 수요 등 여러 요인에 흔들리며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주역을 위해 목북히 교육하며 청출어람(青出於藍)을 기대하는 성실하신 선생님들께 그 공과를 들리며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청소년 자살' 예방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

최근 광주에서 여고생 2명의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들은 가정문제 등으로 지속적인 상담을 받는 등 중점 관리(관심) 대상이라서 더욱 마음이 아프다.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후 최근 5년 동안 자살한 이 지역 청소년이 42명에 달한다. 이 중 남학생이 22명, 여학생이 20명이며 원인으로는 가정불

심과 주의군이 포함된 학생이 8만명에 달하고 있다. '나인효과'를 우려해 '위험지대'에 있는 고위험군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재발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역사회와 교육당국의 소극적인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자살은 개인 차원의 정신·병리적 문제와 사회·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20~30대는 취업 실패 등으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

40~50대는 직장·업무상 문제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한 좌절, 노인층은 고립감과 신체적 질병 등으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

공통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경제적·가정적 문제인 만큼 정부와 관계기관의 보다 견고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가족과 친구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면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영재·광주 동구 학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0-2(우편번호 501-711)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자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면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12	여론조사부 2200-62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6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